

남북경제협력의 확대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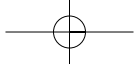
제1절 남북교역

제2절 남북경제협력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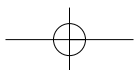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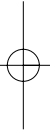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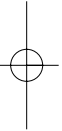
제3절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추진

제4절 남북간 수송체계 구축

2006년 남북경협은 북한 핵실험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간 남북 왕래인원이 10만명을 돌파하고 남북교역액이 1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이 모두 정상가동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MINISTRY OF UNIFICATION



II

남북경제협력의 확대

2006년 남북경제협력은 열차시험운행 무산,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간 남북간 왕래인원이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남북교역액이 1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남북경제협력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이 모두 가동되었으며, 상업적 방식에 의한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추진에 합의하는 등 남북경제협력의 질적인 변화도 모색하였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활성화 등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당국간 회담이 중단됨에 따라 이미 합의된 당국간 경제협력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북한 핵실험 이후 국내 대북투자 수요가 위축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이 보다 진전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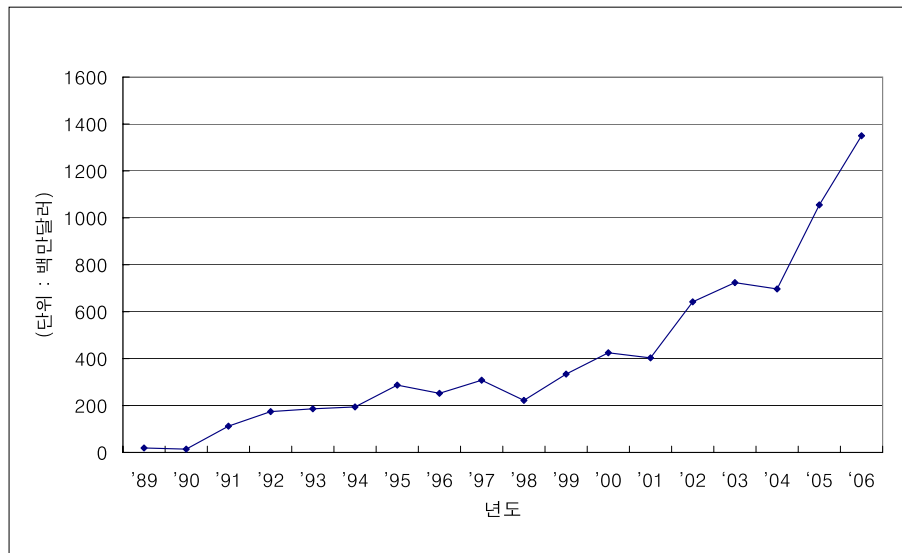
제1절 남북교역

1. 남북간 물자교역

가. 교역규모

2006년 남북교역 규모는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10월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2005년 대비 27.8% 증가한 13억 4,974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개성공단 건설 자재·장비 반출, 건설중장비 재반입 및 생산물 반입 증가,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 증가 등 상업적 거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반입은 5억 1,954만달러로 전년대비 52.7% 증가했으며, 반출은 역시 개성공단·금강산 등 협력사업장 자재·장비, 위탁가공 원부자재, 대북지원 등에 따라 8억3,020만달러로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연도별 남북교역액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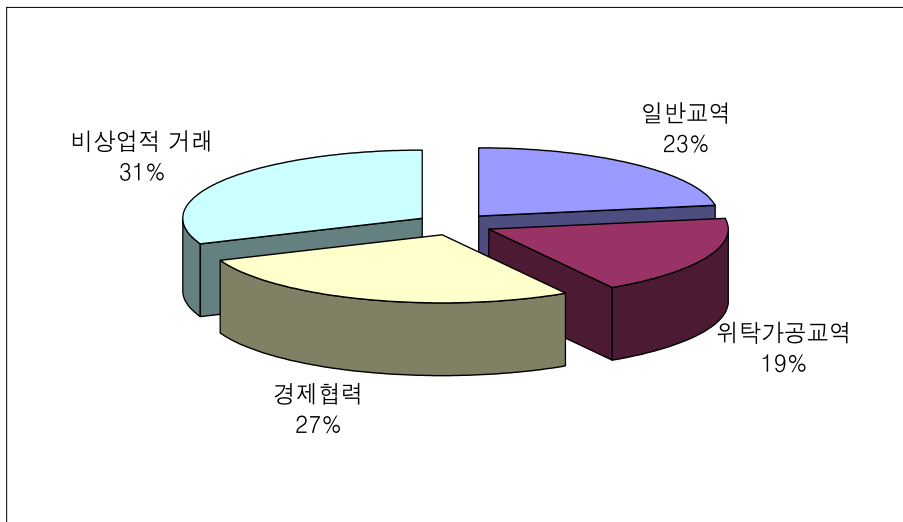


나. 유형별 남북교역

2006년도 상업적 거래는 9억2,807만달러로 전년대비 34.6%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교역액의 68.8%를 차지하였다. 이중 반입은 5억1,839만달러로 전년대비 52.5% 증가하였고, 반출도 4억968만달러로 전년대비 17.2% 증가하였다.

상업적 거래 중 일반교역은 3억413만달러로 전년대비 45% 증가하였고 위탁가공교역도 2억5,296만달러로 전년대비 20.6% 증가하였다. 그 밖에 개성공단 2억 9,880만달러, 기타경제협력 1,553만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69.1%, 149.2% 증가하였다. 한편 비상업적 거래는 4억2,167만달러로 전년대비 15.1% 증가하여 전체 교역액의 31.2%를 차지하였다. 비상업적 거래 중 사회문화협력은 241만달러로 전년대비 208.8% 증가하였고 비료·식량 등 대북지원은 4억1,925만달러로 전년대비 14.9% 증가하였다.

2006년도 남북교역 거래유형



다. 남북간 교역수지

2006년 남북간 교역수지는 명목상으로는 남한이 흑자이나 경협사업, 대북지원 등을 제외한 실질교역 수지는 적자이다. 1989년부터 2006년까지 누적 명목수지는 남한이 4억 5,085만달러 흑자인 반면 누적 실질수지는 23억 8,764만달러 적자이다. 이러한 교역수지 구조는 개성공단 개발의 본격화 및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물자반출의 증가, 대북 지원 물품의 증가 때문이다. 실질교역수지의 불균형은 주로 북한의 구매력 부족 때문으로 북한의 외환사정을 고려할 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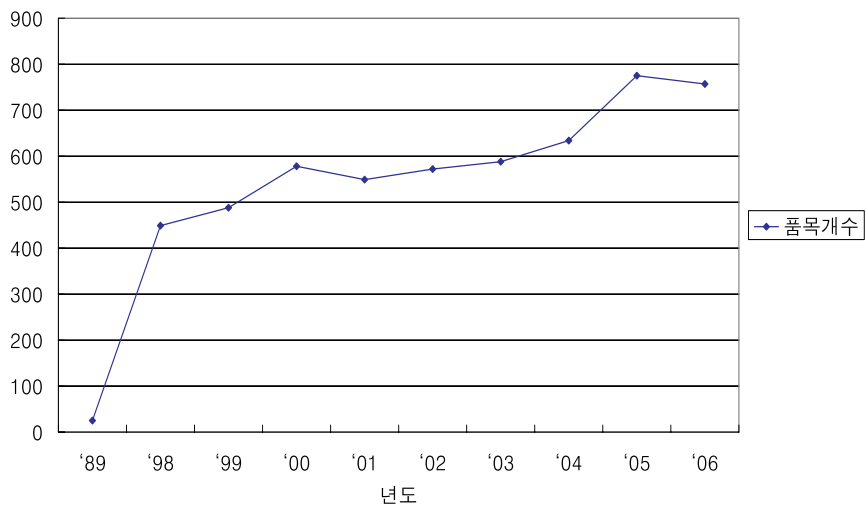
라. 남북한 교역구조

남북교역은 초기에 해외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진행되어 오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농수산물, 광산물, 위탁가공교역의 섬유류 품목을 중심으로 남북교역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직접교역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행, 통신 제약과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개교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2005년 10월 남북교역 기업에게 투자알선 및 면담 지원,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성에 남북경제협력협회의 사무소가 개소되어 운영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협회의 사무소 설립으로 남북간 직교역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남북간 교역품목의 수는 1989년에는 25개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 572개, 2003년 588개, 2004년 634개, 2005년 775개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06년의 경우 전년대비 2.4% 소폭 감소한 757개로 이중 일반교역은 343개, 위탁가공교역은 248개 품목이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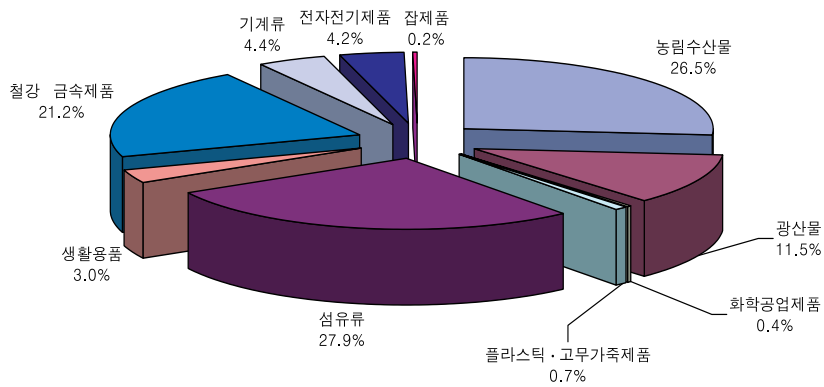
반입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섬유류, 철강금속제품, 수산물, 광산물, 농산물 순이다. 섬유제품은 19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그 비중이 높아져 2006년도 반입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인 27.9%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교역품목 현황



제Ⅱ장
남북경제협력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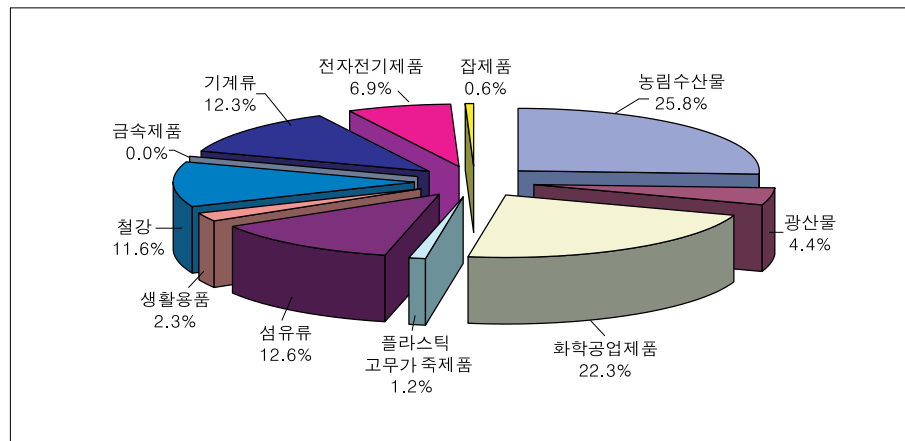
반입품목 구성비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많았으나, 위탁가공교역의 시작과 함께 섬유류의 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식량·비료 등의 지원이 증가하면서 화학공업제품과 농림수산물 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 주요 반출품목의 비중은 쌀 등 농림수산물(25.8%), 비료 등 화학공업제품(22.3%), 직물 등 섬유류(12.6%), 건설중장비 등 기계류(12.3%)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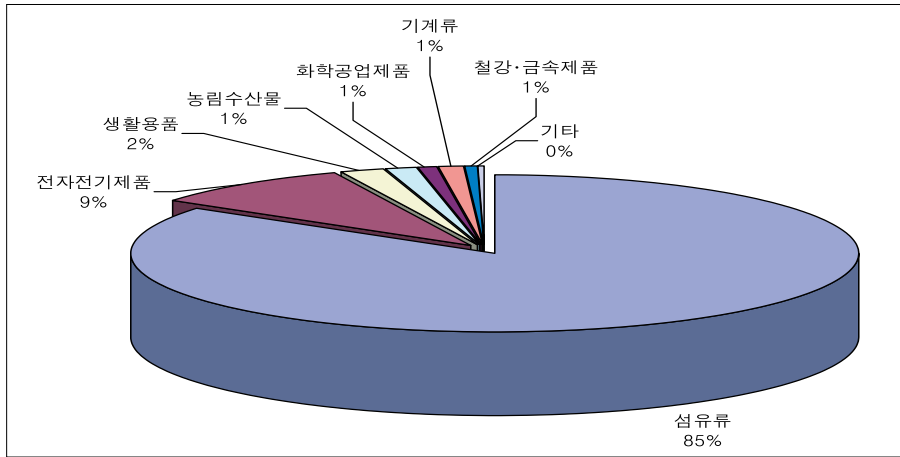
반출품목 구성비



2. 위탁가공교역

위탁가공교역은 남한에서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가공한 후 국내에 가공제품을 재반입하고 북한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가공임을 지급하는 교역 형태이다. 2006년도 위탁가공교역액은 미화2억5,296만달러로 전년대비 20.6% 증가하였다. 이 중 섬유류 위탁가공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케이블TV·전화기 등 전기·전자제품과 휴대용라이터 등 일부 생활용품도 위탁가공으로 생산되어 반입되고 있다.

위탁가공 구성비



제Ⅱ장
남북경제협력의 확대

위탁가공교역 참여업체는 2000년 157개에서 2002년 108개로, 2003년 109개로 감소하였다. 2000년 6.15공동선언 등으로 인한 남북교역에 대한 관심증대로 많은 업체들이 위탁교역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반출입 교역액이 미화 5만달러 이하의 영세업체들은 사업성 확보에 실패하였고, 규모있는 업체가 교역을 주도해 나감에 따라 위탁가공교역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재편되어 가는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2004년을 기점으로 참여업체가 다시 확대되어 2005년 위탁가공교역 참여업체수는 136개, 2006년은 소폭 감소한 123개로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위탁가공 참여업체 및 품목 현황]

(단위: 개수)

연 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품목수	9	35	63	83	118	108	157	216	257	284	311	217	215	243	248
업체수	4	12	11	24	70	64	66	131	157	147	108	109	117	136	123

2절 남북경제협력사업

1. 경제협력사업 추진현황

투자보장합의서를 비롯한 13개 경협합의서가 발효되고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가 개설되는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이 진전된데 힘입어 민간 분야의 경제협력사업은 평양 중심의 소규모 제조업 중심에서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농업, 임업, 경공업, 광업은 물론 IT분야로까지 확대 발전하고 있다. 1995년 대우의 남포공단 합영사업 승인 이후 2006년까지 개성공단을 제외한 민간분야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은 총 45건에 달하고 있다.

민간분야 경제협력사업은 제조업 등 기존 승인사업을 중심으로 꾸준한 실적을 쌓아나가고 있다. 평화자동차는 2002년 6월 남포자동차공장 조립생산 라인 가동 이후 2006년 12월까지 총 838대를 조립하여 727대를 북한 내수용으로 판매하였다. 특히 2006년도에는 쌍용자동차 체어맨을 모델로 하여 '준마'라는 차명으로 18대를 조립하여 판매하는 등 생산 모델을 점차 다각화 하고 있다.



평화자동차 공장전경



태창 금강산 샘물공장 내부

2000년 공장 준공식 이후 사업이 부진하였던 태창은 2005년부터 금강산 육로를 이용하여 ‘금강산샘물’을 다시 반입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6년 6월 추가 투자를 통해 공장 시설을 확장하면서 본격적인 제품 판매 단계에 접어들었다.

IT분야의 협력사업도 꾸준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초기 투자비가 적은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분야가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북한에 프로그램 개발을 용역 의뢰하거나 중국에서 북한 인력을 고용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KT는 각각 2000년, 2004년부터 매년 신규과제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 공동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각각 10개, 6개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의료기기·애니메이션·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IT 분야에서 공동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협력사업의 형태와 분야도 보다 확대되고 있다. 경평인터내셔널과 아이니무역 등은 사업추진이 보다 용이한 설비제공형 위탁가공협력 방식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일유통은 보다 장기적인 형태의 사업인 조림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일유통은 평양, 개성 등지에 느티나무, 백합나무, 이

갈나무 등을 식수하여 양묘중이며, 과수재배 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대한광업진흥공사, 대동무역, 태림산업 등은 2006년 각각 준공식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장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의 연이은 준공식 행사 개최를 통해 북한은 남북경제협력 추진 의지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년에는 이들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협력사업 추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림산업은 남포 인근의 용강석산을 개발하여 2006년 11월 상석 22개와 화강석 100여톤을 반입하기 시작했다. 광업진흥공사의 정춘흑연광산도 11월에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시운전을 마쳤다. 대동무역의 강서청산수 개발 사업도 2007년 상반기중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2006년도에는 개성공단 밖의 지역에 대해 4건의 협력사업을 신규 승인하였다. 현대아산은 6월부터 남북 경협기업간 개성을 경유한 견본품 송달체계를 구축하여 운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10월 금강산 관광지구내에 환전 등을 위한 영업소를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아사달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등 2개 업체는 각각 디자인 콘텐츠, 애니메이션 콘텐츠 등 IT 콘텐츠 제작 분야의 신규사업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태림산업 석재가공공장 작업 현장



정춘흑연광산 현장

2006년 협력사업 승인 현황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농협중앙회	명승지종합개발회사	금강산 관광지구내 금융업	금강산	'06. 5. 8 ('06. 5. 8)
현대아산	민경련	남북사이 왕래되는 건본품 운송사업	개성	'06. 6. 22 ('06. 6. 22)
아사달	삼천리총회사	디자인 콘텐츠 제작	평양	'06. 7. 5 ('06. 7. 5)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삼천리총회사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평양	'06. 8. 25 ('06. 8. 25)

* 주) 개성공단 제외

제Ⅱ장
남북경제협력의
확대

팔목할만한 것은 그동안 북한 내륙지역 육로 운송의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활로가 개척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대아산의 운송사업은 남북 기업간 경험사업을 위한 건본품을 육로로 운송함으로써 남북간 육로 운송체계가 진일보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개성을 통한 건본품 송달은 해상 또는 중국을 경유한 송달보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험사무소에서 확인 및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태창도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동해선 육로를 이용하여 금강산 공장에서 생산된 샘플을 반입함에 따라 남북간 육로운송이 확대될 가능성을 넓혀 나가고 있다.

2. 남북관광협력사업

가. 금강산 관광사업

금강산관광은 1998년 4월 「남북경협활성화조치」에 의해 기업인의 방북이 허용되자, 그 해 6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에 합의하고 11월 18일에

금강호가 동해항을 첫 출항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000년에 2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던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2년에 이르러 심각한 중단위기에 직면하였다. 초기 무리한 투자로 사업자가 자금난을 겪게 되고, 통제된 '제한관광' 으로 인해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그 원인이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하였다. 우선 공동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대출하고, 2002년 4월부터 학생, 교사, 이산가족 등에 대해 관광경비 일부를 보조하였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육로관광을 조속히 실시하자고 북한에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당국은 2002년 12월 동해선 임시도로 연결공사를 완료하고, 2003년 1월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를 타결한 후 2003년 9월부터 육로관광을 실시하였다.

한편 금강산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였다. 금강산 육로관광이 정례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당일관광, 1박2일관광 등 관광상품을 다양화시켰다. 관광코스도 기존에 운영하던 구룡연, 만물상, 해금강·삼일포코스 외에 세존봉과 수정봉코스를 추가로 운영하고, 온정각에서 금강산호텔에 이르는 소나무 숲 사이로 산책로를 조성하여 관광객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인해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금강산면세점 등 예정된 투자가 연기되는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관광사업의 동력을 이어가고 내실을 다지는 한해였다.

북한도 금강산호텔 2층 식당, 금강원, 목란관, 단풍관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온정리포장마차 등을 개설하는 등 현지 판매시설을 확장하여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금강산 관광객의 증가로 나타나 2005년 6월 총 관광객 숫자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2006년 말에는 130만

명을 넘어서었다. 외금강호텔과 농협 금강산지점 등이 개장되는 등 신규 시설이 확충되고 내금강 시범답사, 금강산 특구 개발종합계획 대북 협의,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 면세점 승인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온정각-구룡연 구간 등의 도로와 금강산소방서 건립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결정하였다. 현지 관광시설의 안전점검을 정례화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자율치안대와 자율소



외금강 호텔 전경



남북공동 내금강 답사



농협 금강산지점 개소

방대를 구성·운영하게 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에 노력하였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관광객 감소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업자의 자구노력과 민간단체의 “금강산 찾아가기” 운동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북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 여부로 논란이 야기되었으나, 오히려 이로 인해 금강산 관광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개성·백두산·평양 관광사업

개성관광은 2005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개성시범관광에 합의하고, 1,600여명에 이르는 우리 관광객이 고려성군관, 선죽교, 박연폭포 등 개성지역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2006년 들어서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현대아산과의 갈등을 계기로 개성관광사업자 변경을 요청하며 현대와 개성관광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정부는 “남북사업자간 합의 존중”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북한에 전달함으로써 북한이 현대아산과 재협의를 모색하도록 유도해 왔다.

백두산관광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광도로 및 삼지연 공항 활주로 포장 자재를 제공하고 백두산 현지 기술협력과 시범관광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의 문제로 연기되었다.

평양관광은 2003년과 2005년에 두 차례 실시되어 총 2,400여명의 관광객이 평양을 다녀왔고, 2006년도에도 “평양에서 아리랑이 진행되는 해마다 평양관광을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개성·백두산·평양 등으로 남북관광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자간 협의를 지원하고 관광 확대에 필요한 방북절차 등 관련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3. 호혜의 남북경제협력

2005년 7월 1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남북은 ‘호혜와 상생’의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남북의 자원과 자본·기술을 결합시켜 공동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가. 농업·임업협력

남북간 농업협력은 그동안 주로 민간차원의 일회성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의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의 자생력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 사업보다는 인적·물적 상호교류를 수반한 개발협력 방식으로 전환하여 북한 농업의 근본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되었다.

정부는 농업협력을 위한 협의창구 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2005년 6월 24일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 합의하였고, 2005년 8월 19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남북은 농업분야에서 시범농장의 조성·운영, 종자정선시설 지원 협력, 농업과학 기술 분야 협력, 특용작물 분야 협력 등의 추진과 임업분야에서 양묘장의 조성 등 산림녹화 협력사업의 추진에 합의하였으나,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당국간 농업협력사업을 건인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실적을 보유한 민간 농업협력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05년부터 통일농수산사업단이 추진하는 대북공동영농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통일농수산사업단은 삼일포협동농장의 공동영농사업을 통해 북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이 농자재 및 기술 등을 지원하고, 북한은 토지와 노동력

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평균 생산량이 20~30% 증가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에는 인근 금천리협동농장을 사업 대상지에 추가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다.

임업분야에서는 한반도 산림자원의 확보 및 생태환경 보전을 목표로 북한의 동·서부 양 지역에 각각 한 개씩의 양묘장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는 등 당국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계 이앙



후기 벼 생육 상태

집중관리와 생육후기의 기상상태가 좋아져 벼 작황이 호조를 보였다. 삼일포협동농장 지역은 평균 정보당 4톤에 육박하는 실적을 기록, 남한 방식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농·임업 협력사업은 시범사업의 추진성과 및 남북관계 진전 등을 보아가며 향후 단계적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 임진강 수해방지 협력

임진강수해방지 협력사업은 90년대 후반 홍수로 임진강하류지역인 경기북부에 약 1조원의 재산피해와 1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임진강은 상류의 2/3가 북한에 위치하고, 하류의 1/3이 남한에 위치한 남북공유 하천으로 남북간 협력 없이는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 따라서, 남북은 2000년 8월 평양에서 개최한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04년 3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임진강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가 채택되었고, 2004년 4월 제3차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에서 단독조사 항목 및 조사용 기자재 대북 제공, 북한의 사전 자료목록 제공 등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이 급진전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북한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적 특성, 경제적 실리 부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사업이 진전되지 못했다.

2005년 7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단독조사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상호 교환하고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 데 따라 8월 하순경 공동조사 진행'에 합의함에 따라 2005년 8월 10일과 2005년 12월 23일에 단독조사 결과를 교환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적 보장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공동조사는 이행되지 못하였다.

2006년 6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합의에 따라 2006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실무접촉을 가졌다. 우리측은 미진한 단독조사 요구, 공동조사 실시일정 확정에 주력하여 2004년 4월 합

의한 「임진강 수해방지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요구했으나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다만, 향후 추가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의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6년 11월 임진강 유역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북한과 구체적인 임진강수해방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책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

2005년 7월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남북은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을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비롯하여 실무급 위원접촉 등을 통해 경공업·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대한 구체적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경공업 원자재 대가 상환방식과 지하자원 개발의 구체적 협력방식 등에 대해 이견을 조율하였다.

그 결과 2006년 6월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남한이 2006년부터 북한에 미화 8천만 달러분의 의복류,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당해년도 3% 상환, 잔여분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이자율 1%, 연체이자율 4%)으로 제공하고 북한은 지하자원 생산물, 지하자원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등으로 경공업 원자재 대가를 상환한다는 것이다. 다만, 합의서는 열차 시험운행 실시 등 조건이 조성되는 때에 발효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합의서 채택 직후인 7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함에 따라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여 동 사업은 잠정 중단되었다.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은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기술협력 등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개척 및 국내 원자재의 수입대체 효과와 더불어 북한의 경

공업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남북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라. 수산업협력

수산업협력은 공동어로 등을 통해 북한 수역에서의 제3국 어선 불법조업에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하여 부족한 어족자원을 보호하여, 어장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업계의 활로를 모색하고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협력, 기술교류 등을 통해 낙후된 북한 수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다. 특히 서해 해상 경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완충수역을 확보함으로써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남북간 상호이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은 2005년 7월 27일 남북수산업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서해에서의 남북공동어로 수역 설정 및 이용, 제3국 불법어선 출입 통제 협력, 수산물 생산·가공·유통분야 협력, 우량품종 공동개발 및 수산분야 기술교류, 제3국 어장 공동진출 협력 등에 합의하였다. 2006년 3월 2일부터 3일까지 열린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남북 수산업협력의 구체적 이행방안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북한은 서해 경계선 등 군사적 문제를 우선 해결하지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당국간 회담이 재개되는 대로 수산업협력실무협의회를 재개하여 남북 수산업협력 추진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추진

1. 사업 개요

황해북도 개성지역 일대를 남북 합작 공단으로 조성하는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8월22일 현대아산과 북한과의 합의로 시작되었다. 이후 남북 사업자간 그리고 당국간 협의 과정을 거쳐 2003년 6월 30일 1단계 330만㎡(100만평) 개발에 착공함으로써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였다.

1단계 330만㎡(100만평) 개발 개요

- 위 치 : 개성시 봉동리 일원
- 사업기간 : 2002년~2007년(준비기간 포함)
- 사 업 비 : 2,226억원
- 시 행 자 : 현대아산(주) · 한국토지공사
- 수행방식 : 북한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 공업단지로 개발 후 국내외 기업에 분양

개성공단 사업은 일차적으로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하여 남북이 모두 이익을 얻고자 추진된 남북경제협력사업이다. 국내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따라 해외진출을 모색중인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공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한 사업이다. 특히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노동력과, 서울에서 불과 60km 거리에 있다는 점 등으로 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북한의 개성공단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은 긴장의 대결지역을 화해와 평화지역으로 변모시켜 나가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경의선 도로를 통해 매일 수백명의 인원과 차량이 서울과 개성을 오가며 공단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아울러 개성공단 사업은 바람직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북한 관리들

과 근로자들은 개성공단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장경제 원리를 학습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실용주의적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성공단에는 많은 북한 근로자들과 우리측 기업인들이 함께 근무하며 서로의 일상생활을 체험하고 대화를 나누며 접촉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는 작은 통일의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2003년 6월 착공 이후 3년 반의 기간동안 개성공단사업은 꾸준한 진전을 이루었다. 개성공단 성공 여부를 가늠해 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한 시범단지 사업은 2006년 10월 15개 입주기업이 모두 가동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개성공단 기반시설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330만㎡(100만평)에 대한 부지조성은 2006년 6월 완료되었으며 용수시설, 폐수처리장, 폐기물 처리 시설 등 내부기반시설은 200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이다. 전력(15,000kW)은 2005년 3월부터 공급 중이며 통신은 2005년 12월부터 개통하였다. 1단계 330만㎡에 대한 전력 공급은 10만kW 송전방식으로 2007년 상반기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며, 그 일환으로 남북간 송전선이 2006년 12월 연결되었다.

2006년도 개성공단사업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으로 사업중단 논란이 일기도 하였지만 남북당국의 사업지속 의지와 입주기업들의 정상적 업무수행, 대내외 사업지속 요구 등에 힘입어 중단 없이 추진이 되어 향후 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초로 북한 지역에 대규모 공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남북간에 협조하여 처리할 사항도 많이 발생하였다. 개성공단 출입 절차 간소화,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해 북한은 점차 우리측 의견을 수용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출입 횟수를 2005년 6



시범단지 및 본단지 1차 전경

회에서 2006년 21회로 확대하고, 북한의 출입절차 수속기간을 2005년 30일에서 2006년 7일로 단축하였다. 한편 기업들의 북한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권도 확대되는 등 개성공단의 대북진출 기업들의 사업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아직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이 있는 만큼 정부는 입주기업, 개발사업자, 북한 당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개성공단이 명실공히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단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 1단계 330만㎡(100만평) 개발

가. 입주기업 가동 확대

2004년 12월 15일 (주)리빙아트가 첫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2006년 10월말에는 시범단지 15개 입주업체가 모두 가동하게 되었다. 2006년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및 핵실험 국면 속에서도 7,400만 달러를 생산하여 2005년 생산액 1,490만 달러에 비해 4.9배 증가하였으며, 이 중 1,900만불 가량의 생산품을 중국, 호주, 러시아, 유럽, 중동 등으로 수출하였다. 이는 2005년 수출액 860만불에 비해 2배 가량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2006년 11월에는 개성공단 근무 북한측 근로자가 10,000명을 돌파하였다.

분야별 추진 일지

구 분	추진 내용	일자
사업자 조치	o 현대-北아태간 총66,116천㎡(2,000만평) 개발합의서 체결	'00.8.22
	o 현대·토공-북한간 개성공단 100만평 토지임차료, 지장물 보상비 등 관련 계약 체결	'04.4.13
	o 토공, 시범단지 9만3천㎡(2.8만평) 분양 공고	'04.5.18
	o 한전, 시범단지 전력공급 개시(1.5만kW)	'05.3.16
	o 토공, 본단지 1차 17만㎡(5만평) 분양공고	'05.8.1
	o KT, 개성공단 통신공급 개시	'05.12.28
	o 1단계 330만㎡(100만평) 토지조성공사 완료	'06.6.29
	o 한전, 10만kW 남북 송전선 연결	'06.12.21
북한 조치	o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02.11.20
	o 『개성공업지구 개발 규정』 등 16개 하위규정 제정	'03.4 - '06.11
	o 관리위 북한측 협력부 근무 시작	'05.11.22
	o 북한측 통행검사소 신축 건물 개소	'06.5.22
남북당국간 합의	o 개성공단 통관, 검역, 통신합의서 체결	'02.12.8 ('05.8.1 발효)
	o 남북사이의 투자보장 등 4개 경협합의서 발효	'03.8.20
	o 개성공단·금강산 출입 및 체류합의서 체결	'04.1.29('05.8.1 발효)
대내 조치 및 주요 동향	o 통일부, 현대·토공 협력사업자 승인	'02.12.27
	o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개최	'03.6.30
	o 통일부, 1단계 100만평 협력사업 승인	'04.4.23
	o 시범단지 입주계약 체결(15개 기업)	'04.6.14
	o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출범	'04.10.5
	o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개소	'04.10.20
	o 개성공단 첫제품 생산	'04.12.15
	o 외국인 바이어 방문 시작	'05.6.3
	o 주한 EU 상공회의소 개성 방문	'05.11.2
	o 본단지 1차 입주기업 공장건축 시작	'05.12.5
	o 버시바우 미국 대사 등 주한 외교단 방문	'06.6.12
	o 시범단지 입주기업 15개 완전가동	'06.10.31
	o 북측 근로자 1만명 돌파	'06.11.21

제Ⅱ장
남북경제협력의 확대

시범단지 입주기업 현황

업체명	주요 생산제품	업체명	주요 생산제품
로만손	손목시계	소노코쿠진웨어	주방기기
신 원	의류	호산에이스	공조기 부품
삼덕통상	신발	재영솔루텍	자동차 부품 금형
태성산업	화장품 용기	매직마이크로	LCD 모니터
부천공업	전기배선부품	TS 정밀	반도체 금형부품
대화연료펌프	자동차 연료펌프	용인전자	트랜스포머
SJ테크	반도체부품 용기	제씨콤	광통신 부품
문창기업	의류		

2005년 8월 분양한 1차단지 17만㎡(5만평)에는 총 24개의 업체·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분양을 받았다. 2005년 12월 (주)평안이 1차단지 입주업체 중 처음으로 공장건축을 시작하였으며, 2006년 9월 29일에는 코튼클럽이 첫제품을 출시하였다.

1차단지 입주기업 현황

구 분	업 종	회사명
일반 공장용지	섬유봉제의류	성화물산, 서도산업, 좋은사람들, 엠엔에스, 진글라이더, 아이보리, 코튼클럽, 평안, 제일상품, 녹색섬유, 에스엔지(11개)
	가죽가방신발	아트랑, 밀리온스, 평화제화(3개)
협동화 사업단지	섬유봉제의류	만선, 한국마이크로유틸터, 화인레나운(3개)
	가죽가방신발	삼덕통상, 영일신소재, 영화상사(3개)
아파트형 공장용지	섬유봉제의류	한국산업단지공단
	가죽가방신발	

나. 기반시설 확충

(1) 내부 기반시설 공사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주요 기반시설에는 용수시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단지내 시설(도로, 상·하수도, 조경, 특수시설물) 등 내부 기반시설과 전력·통신 등 외부 기반시설이 있다. 정부는 입주업체가 우리 중소기업이라는 점과 공단의 국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국내공단 수준에 맞춰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나간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의 본격적 가동에 대비하기 위해 2007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기반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내부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 지원하여 시공하고 있다. 외부 기반시설인 전력·통신 사업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장기저리대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용수시설은 개성공단 북쪽으로부터 약 17km 떨어진 월고저수지에서 하루 6만톤(개성시 공급분 1만 5,000톤 포함)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 시행하는 저수지 축조와 도·배수관로는 2005년 11월에, 우리가 시행하는 정·배수장은 2005년 12월에 착공하였다. 2006년말 현재 북한측 공사는 85%, 우리측 공사는 43% 공정을 보이고 있어 2007년 상반기에는 공사완료 및 통수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폐수처리시설은 1단계지역 26,446㎡(8천평) 부지에 하루 3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되며, 그 중 하루 처리규모 1만 5,000톤 시설을 우선 건설하기로 하고 2005년 4월에 착공하여, 2006년 말 현재 90%의 공정이 진행되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1단계지역내 16,528㎡(5,000평) 부지에 매립시설 20만 4,000톤, 소각시설 하루 40톤 규모로 설치할 예정이다.

단지내 시설 중 도로, 상·하수는 2004년 8월에 착공하여 2006년말 현재 90% 진척을 보이고 있다. 교량 등 특수시설물은 2005년 10월에, 근린공원·체

내부기반 시설 현황

구 분	규 모	현 황	완 공
폐수처리장	3만톤/일	'05.4 착공	'07년 상반기
용수시설	6만톤/일	'05.12 착공	'07년 상반기
폐기물 처리시설	40만톤/일	'05.12 착공	'07년 상반기

육공원 등 조경시설은 2005년 12월에 착공하여 2007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단지 내 시설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시범단지 및 1차단지 17만㎡(5만평)은 본단지 기반시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지하수 개발, 임시폐수처리장 설치, 폐기물 위탁처리, 진입도로 우선 건설 등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공장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

(2) 외부기반공사

2004년 12월 3일 남북간 「개성공업지구 전력공급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 2005년 1월 배전시설(1만 5,000kW) 공사에 착수하여 2005년 3월 16일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대한 전력공급을 개시하였다. 아울러 개성공단 본단지에 대한 송변전시설(10만kW) 공사도 추진하여 2005년 4월 송전경과지 노선을 확정하고, 2006년 4월 송·변전 공사에 착수하여, 2006년 12월 21일 남북간 송전선로를 연결하였다. 2007년 1월부터 2월까지 시험 및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5월부터 개성공단의 전력을 배전방식이 아닌 송전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송변전 사업 개요

- 송전선 16km(남10.5km, 북5.5km), 첩탑 48기(남33개, 북15개), 변전소 1기
- 공급량 : 10만kW (154kV)

2004년 12월 KT와 북한측 조선체신회사는 「개성공업지구 시범단지 통신공급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양측은 요금, 정산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

하여 개성공단에서 우리측으로 통화요금을 1분당 40센트로 결정하였다. 2005년 3월 24일에는 「개성공업지구 시범단지 통신공급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통신망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KT에서는 개성공단과 군사분계선 인근 통신망 공사를 추진하여 2005년 7월 18일 남북간 민간차원의 최초 광케이블 접속을 하였으며, 2005년 11월 17일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의한 재수출허가를 획득함에 따라 2005년 12월 28일 228회선을 개통하였다. 개성공단 통신망 개통은 기존의 금강산 통신과 같은 제3국 경유 방식과 달리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간을 직접 연결하는 광케이블을 기반으로 한 상용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2006년에는 개성공단 본단지 통신공급을 위해 북한과 본격적인 통신협상을 추진하면서 통신센터 건립 부지 9,917㎡(3,000평)를 확보하여 센터건물 건축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향후 원활한 통신공급을 위해 330만㎡(100만평)내 통신관로 건설을 추진해 98%의 공정이 진행되었다.

앞으로 정부는 본단지 대규모 통신공급을 위해 인터넷 조기 도입, 전용회선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여 개성공단의 통신환경이 국내수준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개성공단에는 제품 제조, 취사, 난방목적의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민간업체 2곳에서 입주업체, 관리위, 한국토지공사 등에 공급하고 있다.

3. 안정적인 사업 추진기반 구축

가. 법·제도 정비

북한은 2002년 11월 27일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한 이후 2006년 말까지 총 16개의 하위 규정을 제정하였다. 2005년에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회계검증규정」을 제정한데 이어 2006년에는 「자동차관리규정」, 「환경보호규정」을

제정하였다. 「자동차관리규정」은 개성공단 본격 가동으로 차량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단내 차량등록 절차와 자동차 운행질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보호규정」은 개성공단 개발과 운영이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단관련 법제도 구축은 남북 어느 일방의 법제도 적용이 아니라 상호간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해와 협력의 대표적 예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사업준칙이며, 개성공단 관리와 운영은 「개성공업지구법」의 위임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사업준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관리위원회는 2006년말까지 「외화관리준칙», 「통계준칙」등 공단 관리와 운영을 위한 33개의 사업준칙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남북 당국간 체결된 4대 경협합의서 및 「개성공업지구 통관·통신·검역 합의서」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등 남북간 합의서는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법제도적 틀로서 작용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법령의 제·개정 및 해석·적용,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처리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2005년부터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가 운영되고 있다.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는 관·검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에는 총 10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개성공업지구 하위규정 및 시행세칙, 관리위원회 사업준칙에 대한 자문과 개성공단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분쟁의 처리방향 등에 대해 자문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체제전환국의 경제특구 초기 법제 구축 과정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성공단 법제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전문 연구단체의 법제구축 세미나를 지원하는 등 개성공단 법제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저변을 확대하였다.

향후 정부는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북한 법제도의 확충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과 우리 근로자들을 보호하

기 위한 국내 법제도의 정비 또한 시급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 법제도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이러한 법제도적 토대 위에서 개성공단사업이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나. 지원 체계 강화

(1) 개성공단 관리체계

입주기업들의 생산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10월 현지에 설립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기업창설 승인 및 등록, 영업허가,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토지이용권 및 건물 등록, 기업 경영활동 지원, 기반시설 관리, 출입증 명서 발급, 환경보호, 소방대책 등 개성공단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2006년 12월말 현재 위원장 1명, 상근이사 1명, 기획조정실, 사업지원부, 공단관리부, 출입사업부, 협력부, 서울지사 등 1실 4부 1지사 총 5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력부에는 5명의 북한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사무실로 개성공단 시범단지 인근에 부속건물을 포함 3,801㎡(1,150평) 규모의 임시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2009년말 종합지원센터가 완공되어 입주하게 되면 개성공단 관리기관으로서 완전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2004년 10월 통일부의 조직으로 출범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통일부·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노동부·건설교통부 등 9개 정부부처 인원들로 구성되어 각 분야별로 개성공단 개발사업 지원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지원단은 개성공단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업무를 담당하며, 노무관리·통행·통관절차 등 각종 제도수립, 입주기업 지원, 투자유치, 기반시설 건설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6년에도 범정부차원에서 입주기업들의 생산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단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입주기업 지원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공단지원시설 설치·운영

개성공단에는 입주기업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은행, 의료시설, 식당, 편의점 등이 입주해 있다. 2004년 12월 1일 관리위원회 임시청사내에 지점을 개점한 우리은행 개성지점은 2005년부터 업무를 본격 개시하여 송금 및 환전, 예금 및 대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남한측 인원 2명, 북한측 인원 3명 총 5명이 근무중이다.

의료시설로는 의료봉사단체인 그린닥터스 개성병원(2005년 1월 10일 개원)을 운영해오다가 2006년 12월 1일 개성공단 그린닥터스 협력병원이 완공되어 2007년에는 남북의 의료진이 한자리에서 의료활동을 할 예정이다. 그 밖에 식당과 편의점을 통해 식사와 각종 생필품이 제공되고 있다.

한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2005년 2월 소방대를 창설하여 소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방대는 남한 인원 2명과 북한 소방대원 11명으로 구성되어 24시간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10톤급 물탱크 소방차 1대, 고가사다리차, 소방지휘차, 5톤급 화학펌프차 1대와 소방복, 공기호흡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화재예방 및 화재진화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입주기업 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술교육센터, 종합지원센터 등 지원시설 설립을 추진중이다. 기술교육센터는 2006년 7월 착공하였으며 2007년 준공하여 북한 근로자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종합지원센터는 연건평 29,752㎡(9천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개성공단 투자유치 및 경영지원, 전시·판매·컨벤션 및 홍보, 각종 편의시설, 사회문화교류센터 등 복합적인 공공지원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007년 하반기

에 착공하여 2009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3) '대화구조' 확충

개성공단 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필요로 함에 따라 개성공단 관련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 전문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전방위적 정책공동체를 형성하여 개성공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개성공단 포럼,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 개성공단 사업협의회, 입주기업대표자간담회 등이 개성공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공동체이다.

개성공단포럼은 개성공단 개발·운영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로 사업관련 「총괄」, 「인프라」, 「분양전략」, 「인력·문화」 등 4개 하위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개발사업자, 지원기관 등 32명이 참여하고 있다. 2006년 한해 동안 전체회의 4회 등 총 6회의 회의 및 세미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개성공단사업 추진 관련 정책 수립시마다 자문을 하였다.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는 유관기관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는 통일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정부기관 4개 부처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무역협회, 산업은행, 산업단지관리공단, KOTRA, 대한상공회의소 등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12개 민간 유관기관 등 총 16개 기관으로 구성되었다. 2006년에는 전체회의와 상시 실무협의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였다.

개성공단사업협의회는 개성공단 사업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각종 현안을 협의·해결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기구로서, 관리위원회와 지원단, 그리고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참여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총 1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각종 현안을 협의·해결하였다.

입주기업대표자 간담회는 개성공단사업지원단과 시범단지 입주기업들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채널이다. 입주기업대표자 간담회는 입주기업들이 공장건축, 제품생산 등 개성공단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지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으며, 정부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 개성공단사업 이해도 제고 및 지지기반 확대

2006년 개성공단을 방문한 인원 및 횟수는 2005년에 비하여 질적, 양적 측면에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우선 2006년 한 해 동안 개성공단을 방문한 인원은 6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2005년도에는 준공식 또는 착공식 행사 참석을 위한 방문이 주를 이루었으나, 2006년에는 각종 투자시찰단, 정치인, 국회, 학자 등 사회 각계각층이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한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26명의 국회의원이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예결위, 법사위, 평화특위 등 다양한 분야의 의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하였다.

국내 주요인사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들의 방문도 증가하였다. 2005년 외국인들의 개성방문은 EU상공회의소 기업인들이 전부였다. 그러나 2006년에는 연초부터 외신기자단 50여명의 방문을 비롯하여 미국 민주당 짐 맥더못 하원의원 등 미국 의회의원 및 보좌관,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 파울 호이네스 주한 덴마크 대사, 아세안 FTA협상단, EU의회 및 집행위원회 등 총 399명의 외국인이 개성공단을 방문하였다.

해외언론 중에서도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의 언론들만이 아니라 AP, AFP,